

생명으로서의

책에

숨결을 불어넣기

북디자이너 민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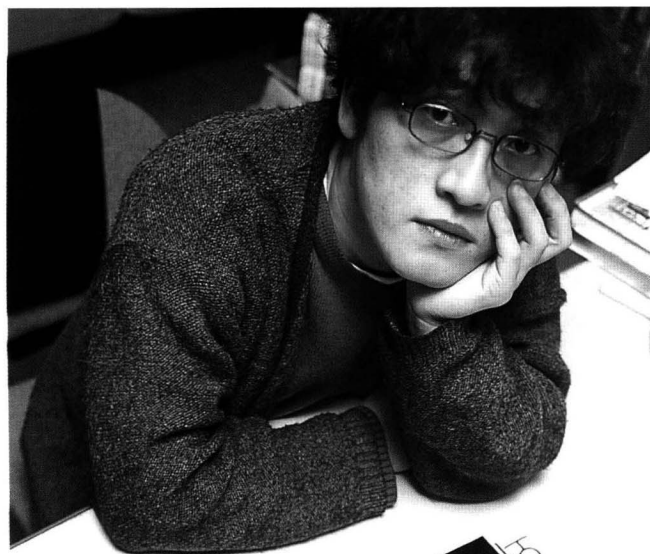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 북디자이너 민진기, 그리고 그의 표지 장정이 그렇다. 《마더 테레사의 말씀》, 《테마 한국문학사》 시리즈, 최근 들어 홍세화의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최영미의 《화가의 우연한 시선》 등이 그의 작품이다. 돌베개의 편집자는 민진기에게 치열함, 지독함, 완벽함 등의 수식어를 달아주었다. 책이라는 까다로운 상품을 디자인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추었다는 뜻이다.

북디자인에 입문한 계기는? 대학에선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 후 기업체 홍보부에서 근무했는데 조직생활이 잘 맞지 않았다. 그만두고 정병규디자인에서 5개월 정도 있었다. 그리고 출판사 몇 군데에서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쉬고 있던 차에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와서 일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됐다. 집에서 1년 정도 작업하다가 사무실을 냈다. 사무실이라기보다 작업실 개념이다. **북디자이너가 된 동기는?** 북디자인이라는 게 집적도가 상당히 높은 작업이다. 여러 명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혼자 하는 작업이니까 적성에 맞을 거 같았다. 졸업하고 정병



규디자인을 가게 된 것도 그곳이 북디자인을 많이 해서였다. 물론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았지만... 프리랜서니까 클라이언트인 출판사와 의견을 많이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북디자인이 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단순히 얼굴화장을 곱게 시켜서 남들이 이쁘게 봐주었으면 하는 차원의 북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존재로서의 책은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다. 그것은 저자만의 것도 아니고 출판사나 편집자만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이 살아남아 독자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이 잘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책을 만든다. 물론 북디자이너도 같은 생각이다. 곧 생명을 지니게 될 책에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상징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디자인을 할 때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는 뭔가?**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일순위는 제목일 것이고, 다음



은 이미지로 표현할 책이 있을 거고, 글씨만 가지고 가능한 것도 있다. 초창기엔 타이포그래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샌 덜 쓰는 편이다. 요즘은 내가 하는 디자인이 고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글꼴 운영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제일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다면?** 생각이 많이 변해서 딱 하나를 말하긴 어렵지만 《전태일 평전》 디자인이 좋다. 원래 1990년도 초에 다





른 분이 디자인했었던 건데 2001년에 새로 찍으면서 작업한 경우다. 내 스타일에선 벗어난 측면도 있긴 한데 마음에 든다. **자신의 디자인 특징을 규정해본다면?**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책을 다르게 디자인하겠다고 생각했다. 각 책에 맞는 고유한 컨셉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기도 한다. 간혹 다른 디자이너들의 서가를 볼 때 어떤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부러울 때도 있다. 이제 와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도 우습지만 일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한다. 언젠가 어떠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눈에 띈다면 그게 내가 하는 작업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잘 안 보인다. **최근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솔직히 요즘은 슬럼프라고 생각한다. 2002년도엔 일을 좀 많이 했다.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일을 너무 많이 받기도 했고 나한테 잘 맞는 일을 고르지 못한 거 같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일하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정체성은 떨어져 간다고 본다. 이를테면 포지셔닝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고민이다.(웃음) **북디자인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려본다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은 작고한 '다나카 잇코' 라는 일본의 저명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일본현대북디자인전' 의 도록 서문에서 한 말을 인용해 보겠다. 책은 작은 우주이다. 항상 예상할 수 없는 개성을 띤 존재이다. 북 디자인은 책의 논설이나 도상(圖像)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세계를 보다 아름답게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재료를 고려하고, 색을 부여하고, 형태를 분석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이렇게 해서 책은 나름의 성격에 맞는 얼굴을 간직한 채 거리로 나간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디자인은 무엇인가?** 앞서 인용한 다나카 잇코의 말에는 나의 현실과는 괴리 같은 것이 있다. 내가 북디자인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나카 잇코의 금쪽 같은 말이 백 퍼센트 적용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디자인하고 싶다고보다는 정말 기쁘고 흥분되고 설레면서 디자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997년부터 북디자인을 시작했다. 이제 6년 남짓이다. 많은 성과를 이루고도 그는 스스로 슬럼프라고 말했다. 민진기의 물리적인 나이가 적어서가 아니다. 천성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통과 의례로 보여진다. 자신의 디자인을 회의와 반성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 시기를 넘어서 그가 한국의 북디자인계에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 인물**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